

음주와 재테크



인제대학원대학교 / 김 광 기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하는 습관을 배워서 실천하여야 한다고 한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돈을 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곳에 있다. 한마디로 지출을 아낀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곳에는 쓰고 어떤 곳에는 쓰지 않아야 하는 지를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지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빠듯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들에게는 매달 지출되어야 할 곳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주택 대출금 상환, 연금, 건강보험료, 할부금, 세금 등 더 이상 지출을 줄일 곳이 없어 보인다.

더 이상 줄일 곳이 없지만 “마른 수건 짜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다 보니 한 가지 허점이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한번 보자. 건강보험은 우리가 아플 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 놓은 것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꼬박 꼬박내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지금까지 인하된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국민 전체가 마치 아플 때를 대비하여 일종의 “친목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매달 내는 갯돈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갯돈을 부담하는 정도가 수입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사람은 내는 갯돈에 비해 혜택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도록 되어 있다. 친목계를 함께하는 계원들이 아프지 않으면 갯돈은 안 올려도 되지만 계원들이 자꾸 많이 아프면 갯돈 걷는 것을 올려야 한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구조 하에서는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록 하는 것도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길이다.

방법 중 하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아프지 않도록 하면 된다. 본인 자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건강보험가입자도 아프지 않아야 한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절주하며 운동도 열심히 한다. 내 동료는 담배도 피우고 폭음도 잘하며 운동은 안한다. 그러다 보니 술마신 다음 날 병원에 자주 간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나와 똑같이 낸다. 폭음과 흡연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고 그 결과, 내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는 인상되는 것이다. 그 동료에게는 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하고 나는 조금 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 하지만 지금 제도는 그렇게 못하고 아니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료비 지출(2005년)의 11.4%는 음주 때문이고 6.6%는 흡연, 6.0%는 비만 탓이다. 2009년 술 때문에 생기는 질환 30가지(세계보건기구는 60개 질환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함)만 선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해 본 총 진료비는 6조 1226억 원으로 2005년 3조 2127억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담배와 관련된 질환은 5년 동안에 2조원 정도였다.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내가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동료가 금연, 절주, 건강한 식생활 및 운동을 하도록 권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린 회사 회식에서 폭음을 권장한다. 동료에게 “취하도록 마시라고” 권한다. 안 마시면 강제로

마시도록 강권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남자의 경우), 유방암의 경우에는 음주가 원인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주장이다.

술을 권하는 것은 정(情)을 나누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암물질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고 결국 내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되는 셈이다.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술을 강권하는 것은 폭력이며 내 주머니를 스스로 터는 일을 하는 것이다. 동료에게 건강생활습관을 권장하는 것과 함께 그런 생활습관 실천이 쉬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동료가 술을 덜 마시게 하고 싶다면 나부터 술 권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이며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이 바뀌어 질 수 있는 법률 및 제도개선을 정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내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는 줄어 들 것이다. 사실 동료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우리가 만든 음주조장 환경 탓이니 동료를 탓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덜 마실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지난 9월에 정부가 발의한 주류광고 제한,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금지를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우리를 부자되게 하는 정책인 셈이다. ☺